



호랑이 'V11' 가는 길 탐색 끝났다

시범경기 결산 박경태 성장에 좌완 불펜진 숨통, 최강 마운드로
신형 클럽업 'LCK포' 가동 등 방망이 살리기 속제



‘투고타저(投高打低). KIA 타이거즈가 2011 시범경기에서 받은 성적표다. 새 용병 트레비스의 가세 속에 계투진의 안정세까지 더해진 마운드는 거침없는 파워를 과시하며, V11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KIA 투수진은 승부처기를 제외한 시범경기 정규이닝에서 3.15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타선은 이범호라는 ‘거포’를 투입했음에도 0.229의 타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쳐 ‘방망이 살리기’라는 속제를 제시했다. <더 강하고 높아진 철벽 마운드=조범현 감독은 올해도 6선발 체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스 윤석민과 특급 용병 로페즈는 시범경기에서 구위·스피드·경기 운영 능력에서 원투펀치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트레비

스도 팔색조의 매력을 발휘하며 선발진에 힘을 더해준다. 노련미의 서재응과 좌완 양현종까지 이번엔 5선발이 완성됐다. 투구폼 수정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피칭을 보여준 김희철이 6선발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과부하와 부진으로 슬러기기에 실패했던 손영민-곽정철-유동훈으로 이어지는 ‘SKY 라인’은 마무리 자리에서 각축을 벌이게 된다. 박경태·박성호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제구잡기에 성공한 박경태는 KIA의 고민이었던 좌완 불펜진에 숨통을 틔워줬다. 197cm의 박성호도 위에서 내리꽂는 묵직한 강속구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시범경기 스타로 떠오른 투기 홍건희는 조 감독의 새로운 고민거리. 두둑한 배짱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높은 진입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신용운도 상승세를 타지만 쟁쟁한 경쟁자들을 넘기에는 위

력이 부족했다. <타선은 진행형=주전급 선수들이 총출동한 마운드에 비해 타선은 부상병들과 테스트 진행으로 완벽한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구축된 KIA의 신형 클린업트리오 ‘LCK포’는 부상과 부진으로 제대로 가동을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간결한 스윙을 위해 기술훈련을 병행한 이범호와 좌익수로 변신한 김상현이 시범경기 막바지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기대를 높였다. 문제는 최희섭이다. 허리 통증으로 스포링캠프에서 중도귀국했던 최희섭은 시범경기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독한 재활로 일찍 모습을 드러낸 안치홍은 ‘감각 살리기’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개막전 출전에 무리가 없다. 김선빈도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꼬꼬마 키스톤’은 올해도 KIA

내야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재활중인 나지완의 공백에서는 김주형이 홈런쇼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현근도 시범경기에서 0.417의 타율로 6타점을 기록하며 향상된 공격력을 보여줬다. 주력은 외야수 신종길이 전담했다. 스포링캠프에서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던 신종길은 다소 하락세를 보였지만 변함없는 빠른 발로 7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입지를 넓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캐릭터 상품 구매 팬들에 적립금

KIA 타이거즈가 현대홈쇼핑(H mall)을 통해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는 팬들에게 적립금을 증정한다. 이번 적립금 증정 행사는 29일 열리며 KIA 유니폼과 야구 모자, 글러브, 액세서리, 응원 용품 등 100여 개 전 상품에 대해 구매 금액의 10%를 적립해 준다. 주요 판매 상품으로는 KIA 원정 유니폼(4만3000원), 최희섭 캐릭터 커튼 티셔츠(2만5000원), 밴드형 게임 캡 야구모자(2만5000원) 등이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1.5m퍼트... 신지에 아쉬운 준우승

KIA클래식 파이널 라운더서 산드라 갈에 1타차 역전패

‘골프 지존’ 신지에(23·미레아셋)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에 실패했다. 신지에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터 오브 인더스트리의 인더스트리 힐스 골프장(파73·6700야드)에서 열린 KIA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산드라 갈(독일·16언더파 276타)과 접전을 펼치다 1타차로 준우승(15언더파 277타)에 그쳤다. 세계랭킹 100위에 불과한 갈은 17번홀까지 신지와 동타로 팽팽히 맞서다 18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1m 거리에 불이며 버디를 잡아내 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갈과 챔피언조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친 신

지에는 18번홀에서 세 번째 샷을 1.5m 이내로 떨어뜨려 먼저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불은 홀 주위를 한 바퀴 돌고 흘러나왔다. 신지에는 갈에 1타 앞선 채 4라운드를 시작했다. 하지만 퍼팅이 난조를 보이면서 전반에 보기 3개를 적어냈다. 2타 뒤진 채 후반에 들어간 신지에는 13번홀(파3)에서 갈이 1타를 잃는 사이 1.5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단숨에 14언더파를 만들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신지에는 15번홀(파3)에서 8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1타차로 앞서 나가 승부를 결정짓는 듯했다. 하지만 정교한 퍼트로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낸 갈은 16번홀(파4)에서 2.5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다시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세계랭킹 2위 신지와 맞붙어 잃을 것이 없었던 갈은 마지막 홀에서 편안하게 친 세 번째 샷을 홀 옆에 바로 붙여 손쉽게 버디를 잡아내고 미소를 지었다. 올 시즌 LPGA 투어 3개 대회에서 기대 못 미친 성적을 낸 신지에는 18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앞두고 어드레스를 푸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민경(23·하나금융)은 11언더파 281타를 쳐 공동 3위에 올랐고 최나연(24·SK텔레콤)은 공동 5위(9언더파 283타)로 대회를 마쳤다. 재미교포 위성미(22·나이키골프)와 민디 김(22)은 공동 7위(8언더파 284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깜찍·발랄... '체조 요정' 손연재 세계 톱10 청신호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7·세종고)가 2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끝난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대회에서 개인종합 12위, 볼 결선에서 7위에 올라 세계 톱 10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김지영 대한체조협회 강화위원장은 “짧게는 한 달에서 1년 사이 손연재의 주목별 점수가 1점 이상 상승해, 런던 올림픽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위스퍼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된 손연재가 춤을 추며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시즌 두번째 '톱10'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두 번째로 톱10에 진입했다. 최경주는 28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장(파72·7321야드)에서 열린 이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2라운드 때는 하루에 8타를 줄이며 공동 2위까지 올라갔던 최경주였지만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를 치며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최경주는 지난 2월 노던트러스트 오픈에서 공동 7위에 오른 이후 시즌 두 번째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우승컵은 8언더파 280타를 친 마틴 레어

드(스코틀랜드)에게 돌아갔다. 레어드는 2009년 저스틴 팀버레이크 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뒤 2년 만에 PGA 투어 승수를 추가했고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출전권도 확보했다. 전반에 1타를 줄인 최경주는 14번홀(파3)에서 4.5m짜리 퍼트를 넣어 버디를 추가했지만 15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인비테이셔널 최종 6위
우즈 1언더파 공동 24위

번커에 빠져 결국 1타를 잃고 말았다.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만들어 기운을 차린 최경주는 18번홀(파4)에서도 두 번째 샷을 번커에 빠뜨리고 파퍼트마저 놓쳐 1타를 또 잃었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합계 1언더파 287타를 적어내며 공동 24위를 기록했다. 또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는 공동 24위(1언더파 287타), 나상욱(28·타이블리스트)은 공동 30위(이븐파 288타)로 이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앤틱 좌탁

H561 6~12인 좌탁 ITALY

앤틱 식탁·거실 TV장

ITALY

명화 거실·식탁·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일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 062-226-7567

홍스페이스는 직수입 - 직영점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국산가구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